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충현음악아카데미
‘음악캠프’로 오세요!일시: 8월 8일(월)~9일(화)
장소: 충현기도원

내일(8일)부터 충현기도원에서 음악캠프가 열립니다. 현재 충현음악아카데미에서는 3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클래식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번 음악캠프는 이들의 성장과 음악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강사가 지도할 악기별 마스터 클래스 및 생악(성인 및 어린이) 클래스는 기본이며, 11월 20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교인 찬양축제(1인 1악기)를 준비하는 오케스트라 연습이 최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첫날 저녁에는 아와음악회(20:00)를 마련했으니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기도원으로 오서 아름다운 저녁, 십자가 보혈로 충만한 찬양의 은혜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충현음악아카데미에서는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해 드리고 있으며, 최근에 완공된 본당 지하1층에 있는 소모임 장소가 새 연습실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배우는 충현음악아카데미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이다”(시 33:3).

*문의 / 충현음악아카데미(내선 259)

메시아의 족음 65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자신의 모습

로 끌려 가지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는 말씀처럼 능동적으로 앞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두었다(요 10:17-18).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유다의 역할은 큰 의미가 없다. 사도 요한은 불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겔새마네에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요 18:4).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이었기에, 이 일을 행하시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를 비롯한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당대히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정작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다(요 5:18).

경건한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이 찾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다. 메시아 예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지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었다. 시골 출신, 거기에다 비천한 목수(木匠)의 아들이었던 청년 예수가 행한 일은 당시 사회지도층이었던 종교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요 7:19, 25, 30, 8:37, 40).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종교지도자들이 세운 전통과 권위를 깨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의 명예와 전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심히 찾아다녔다(요 10:39, 11:8, 56).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요 7:34). 메시아 예수가 아닌,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골 출신의 청년 예수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요 8:21).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제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잘 지켰다 소용이 없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요 13:33). 오직 은총의 자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요 20:15).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자신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인던 이방인들이었다. 느부갓네살(단 3:28), 벨사살(단 5:29), 다리오(단 6:26), 고레스(스 1:3) 등 이방 국가의 왕들, 나만(왕하 5:15)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마 2:2)이 참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 위임독사님이 설교하시는 월요새벽기도회가 내일(8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새벽 4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ASSURANCE

*⁽⁴⁴⁾It was now about the sixth hour, and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⁴⁵⁾for the sun stopped shining.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⁴⁶⁾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Luke 23:44~46)

Today's Bible verses tell us that for three hours, during the brightest part of day, the sun was obscured and the holy fabric that separated God's mighty presence from man was ripped in half. These two events are incredibly amazing! How can the sun shut down between 12:00 p.m. and 3:00 p.m.? How can one piece of cloth separate from top to bottom into two parts without human intervention? God controlled both occurrences. He caused the sun to stop producing sunshine and He destroyed the curtain separating the Holy of Holies from the rest of the Temple. It was literally a very dark and ominous time, worse than a tsunami or atomic bomb explosion. Everyone, the Roman soldiers, the scribes, Pharisees, and general public were very frightened at these things that were happening. At this time, Jesus cried out lou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Lk. 23:46). This prayer given before His death, before His last breath, was personal. When we look inside this prayer we can find one amazing thing, assurance!

We can all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our Heavenly Father. Can you imagine at the time the Son of God lost his power He still had assurance? Jesus Christ had assurance through His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God created us for fellowship with Himself. Do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Jesus? You're not in control of what happens, so no matter what disaster comes your way you can go to Jesus. Our fellowship with God was broken by the fall of humanity into si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Gen. 2:17). We ate of it, and now we surely die, but Jesus came to pay our debt of sin to restore us to God. Humans are more than body and mind,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1 Thes. 5:23). Our body, spirit, and mind all require relation with God. Our bodies make us world conscious, our souls make us self conscious, and our spirits make us God conscious. Jesus died to restore our fellowship with God the Father and He gives us new life through spiritual rebirth,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Eph. 2:1~2).

We come into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Christ-like faith. Jesus Christ cried out "Father", like a child calling for his/her daddy. Our relationship with God needs to be childlike, faith that

trusts no matter what. When we accept Jesus Christ, we become a child of God,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n. 1:12). Receiving Christ by faith makes us children of God. This new relationship makes us part of God's family, so that fellow believers become our sisters and brothers. Jesus commands us to love one another as He loves us. Are you practicing such love? Do your eyes seek what your brothers and sisters need? Through Christ, the many promises of provisions become ours. Our Heavenly Father is extremely powerful and rich, and He is more than able to provide whatever you need. Do you believe it, or do you complain about how God doesn't give you this or that? Where is your faith? What kind of relationship do you really have with the Heavenly Father? If you have true faith, you can confess the same as Jesus. Please understand that no religious act can bring about this new relationship, only faith in Christ,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 2:8~9). No religion can make this offer to you; it is a free gift to all who believe in Jesus Christ. How great is our God? How blessed are His children?

We can have absolute assurance about life after physical death. Jesus prayed for Himself,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Lk. 23:46). Do you know this faith? Do you understand its immeasurable depth of assurance? There are many, many lessons here. Jesus was in full command in His last moments. He maintained a perfect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He had complete reliance upon His Father for everything beyond earth. His death was entirely voluntary. He completely submitted to His Father's will. He triumphed over death. He experienced perfect peace in death. His last prayer expressed the destination of His human spirit. He did not die as a martyr, but as the Savior in God's plan! What blessed assurance! He came to die not just as a moral example, but more so as a substitute for sinners. He fulfilled His mission as called by the prophet's of Scripture. He displayed all of God's love and righteousness.

My dear friends, do you have assurance? I know you belong to God, and that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but do you have the kind of fellowship with Him that is reassuring? Please come in faith to the One who died for you and become a child of the Heavenly Father. Experience His peace in the most trying of life's situations. Amen. ☞

학 신

“(44)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45)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44~46)



김성관 목사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장 밝아야 할 낮에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던 일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제로부터 인간을 떼어 놓았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정오와 오후 3시 사이에 태양이 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개입 없이 천 조각 하나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양을 조정하여 빛을 멈추게 하였고, 지성소와 성전의 나머지들을 분리하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 때는 쓰나미나 원자폭탄의 폭발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야말로 매우 암울하고 불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로마 군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중들 등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예수께서 최후의 숨을 내쉬기 전 죽음을 앞두고 드리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입니다!

하나님과 의 화목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힘을 잃으셨을 때에도 여전히 확신을 잃지 않으셨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와 관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통째로 주 없습니까. 그렇기에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이 죄로 인해 지금의 우리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값을 치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이상의 역사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하실 때에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을 의식하게 하고, 우리의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 거룩함을 통한 새 삶을 주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곧 지에 본춘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1~2).

그리스도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한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치 어떤 아이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됩니다. 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며 동료 신자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찾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공급하심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최고의 능력자이시며 부요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 그 이상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아버지와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이 새로운 관계를 가져올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어떤 종교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들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십니까!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총이 얼마나 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육신적 죽음 이후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여러분은 이 믿음을 아십니까? 이 말 속에 담긴 해일 수 없는 깊은 확신을 이해하십니까? 수많은 가르침들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완벽하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가졌던 영이 마침내 어디에 도달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순교자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세주로서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확신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대속물로써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니까? 부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힘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

성경 파노라마



예수님의 이적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복음전파의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셨다. 이적이란 단순히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로 진행되어 통상적 자연 질서를 잠시 중단하고 인간 구원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각 때에 필요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므로써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되는 것만이 참 이적이다. 이처럼 믿음과 복음의 전체 조건으로 주어진 이적의 진의를 모르게 되면 단지 기복적 입장에서 이적을 위한 이적만을 요구하고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심지어 사탄의 간계에 의한 사악한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대상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확증시켜 주셨던 예수의 각 이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적	장소	특징	성구
육체적 질병 병치유	나병환자	갈릴리 지방	병자를 향한 주님의 연민이 강조됨	마 8:2-3; 막 1:40-42; 눅 5:12-13
	백부장의 하인	가버나움	이방인의 믿음이 두드러짐	마 8:5-13; 눅 7:1-10
	베드로 장모의 열병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직후 예수님 일행을 섬김	마 8:14-15; 막 1:30-31; 눅 4:38-39
	종풍병자	가버나움	친구들과의 믿음과 우정, 열정이 강조되고 주님의 죄 사하시는 능력이 강조됨	마 9:2-7; 막 2:3-12; 눅 5:18-25
	혈루증 앓는 여자	가버나움	예수를 향한 여인의 간절한 심정 강조됨	마 9:20-22; 막 5:25-34; 눅 8:43-48
	두 맹인	가버나움	자신의 믿음대로 치유받음	마 9:27-31
	한쪽 손 마른 사람	갈릴리 회당	안식일 논쟁을 일으킴	마 12:10-13; 막 3:1-5; 눅 6:6-10
	바디매오와 다른 한 맹인	여리고	끈질긴 간청으로 치유받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	마 15:29-31; 막 7:31-37
	귀 귀고 말 더듬는 자, 맹인	갈릴리 바다 근방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의 친밀한 동행이 두드러짐	마 20:29-34; 막 10:46-52; 눅 18:35-43
	벧새대의 맹인	벧새대	두 번 안수하여 고치심	막 8:22-26
	수증병 든 사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바리새인의 집에서 안식일에 치유하심	눅 14:1-6
	열 명의 나병환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치유된 자 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м	눅 17:11-19
	귀 잘린 말고	갓세마데 동산	원수까지도 고쳐 주심	눅 22:50-51
	왕의 신하의 아들	가나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고쳐 주심	요 4:46-54
정신적 질환 치유 및 축사	베데스다 못기의 병자	예루살렘	38년의 오래된 질병도 단숨에 고치심	요 5:1-9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예루살렘	나면서 된 병자도 고치심	요 9:1-41
	두 귀신 들린 자	거라사(가다라)	왜지때 물사 사건이 뒤따라 일어남	마 8:28-34; 막 5:1-15; 눅 8:27-35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가버나움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받음	마 9:32-34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갈릴리 지방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받음	마 12:22; 막 11:14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	두로	이방인도 치유해 주심	마 15:21-28; 막 7:24-30
	간질하는 소년	변화산 근방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심	마 17:14-18; 막 9:17-29; 눅 9:38-43
	회당의 귀신 들린 자	가버나움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봄	막 1:23-26; 눅 4:33-35
	꼬부라져 퍼지 못하는 여인	갈릴리 한 회당	18년 된 귀신을 단숨에 쫓으심	눅 13:11-13
	풍랑을 잔잔케 하심	갈릴리 바다	자연에 대한 제어 능력	마 8:23-27; 막 4:37-41; 눅 8:22-25
	오천 명을 먹이심	갈릴리 벵갓가	이적의 능력과 사랑의 조화	마 14:15-21; 막 6:35-44; 눅 9:12-17; 요 6:5-13
	물 위를 걸으심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심	마 14:25-27; 막 6:48-51; 요 6:19-21
	사천 명을 먹이심	갈릴리 바다	이적의 능력과 사랑의 조화	마 15:32-38; 막 8:1-9
	물고기 입 속에서 돈을 꺼내라 명하심	가버나움	제자들에게 전지 전능성을 입증하심	마 17:24-27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적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심	예루살렘	심판의 능력이 되심을 암시하심	마 21:18-22; 막 11:12-26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	갈릴리 바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함	눅 5:1-11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가나	최로 깨어진 인간의 혼인잔치를 완성하심을 보여줌	요 2:1-11
	부활 후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	갈릴리 바다	제자들에게 부르신과 소명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	요 21:1-11
	아이로의 딸	가버나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심	마 9:18-25; 막 5:22-42; 눅 8:41-56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나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심	눅 7:11-16
사상 개혁	나사로	베다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심	요 11:1-44

망 끝까지

동말레이시아에 진정한 왕을 전하다 (11교구 3팀)



11교구 3팀의 팀원들은 각자 타 국가에 여러 차례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나 동말레이시아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다. 팀원 모두가 무슬림에게 전도할 특권을 가진 사실에 감격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 이방인이었으나 주님의 예정 하심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날 전하는 자로 담당이 서게 된 것이 아닌가. 11교구 3팀은 동말레이시아 왕의 생일이 있는 연휴 기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삼일만 경비 속에서 경찰에게 붙들려 가기도 하고 운전기사과 숙소를 정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만나처럼 달콤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온 에 중에 선교를 마쳤다.

모두 동말레이시아에 처음 간 팀원들에도 사도행전과 같이 모든 것을 나누심에 감사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에 법사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었다. **이연진 권사(팀장)**

사실 매년 반복되는 선교지만 그 마음은 매년 달랐던 것 같다. 선교는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그 중요성을 깨달으며 앞으로도 준비하고 나아가겠다. **김순정 집사(총무)**

선교를 떠나기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팔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은 오미려 내 마음을 편하게 하사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셨다. 대를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하셨는데 나의 생각과 계획은 어리석고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상황에 감사하며 살겠다. **이유영 집사(서기)**

무슬림에게 처음으로 전도하게 되었다. 그들의 심령은 너무나도 작아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도 많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관심을 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봤겠다. 더 많은 시간을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해야 나아가겠다. **윤순복 집사(서기)**

선교를 함에 있어 두려웠으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나를 보신 신의 이유와 선교의 목적을 깨달았으며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 알게 되었다. 더욱 감사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전하고자 하였다. **김수영 권사(선양)**

우리를 기쁘게 맞아준 롬아우스 주민들에게나 우리를 편박하고 내쫓으려고 했던 경찰들에게나 그들을 향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내면서부터 무슬림이 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태깅받았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으며, 무슬림 선교에 대해 열망을 품고 나아가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이재욱 권사(의료)**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게 하셨다. 자기부인을 더 하게 되었으며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이다. **오광순 집사(부회)**

취재 : 임동현 기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요!



몽골

위치 : 중앙 아시아 고원지대 북부

수도 : 울란바토르(Ulaanbaator) 언어 : 몽골어

기후 : 대륙성 기후(한랭건조함)

계절 기온차 극심(-35~+25℃)

종교 : 라마불교 50%, 무교·샤머니즘 44%

이슬람교, 기독교 소수

1. 기본 정보

- 몽골은 13세기 초 칭기스칸이 몽골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세계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으나 1688년 청나라에 정복당하여 '외몽골'이라고 불렸다. 우리나라와는 1990년에 정식 교류를 시작하였다.
- 몽골은 남한의 16배의 크기로 국토 전체의 평균 해발 고도가 약 1,600m에 이르는 고원 국가이다. 남부의 3분의 1은 고비 사막(Gobbi Desert)이고 사막화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몽골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가 극심하다.
- 몽골의 교회 수는 450여 개이며, 어린이 포함 전체 교인은 약 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어린이들과 젊은층이 복음을 잘 영접하는 편이다. 몽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마불교와 샤머니즘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은 2%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선교가 필요한 나라이다.



2. 선교 진행 상황

-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몽골에 5개 팀이 다녀왔고, 6개 팀이 온전 중이다. 2008년부터 정부와 교회를 통해 많은 교회의 등록을 취소하고 약 2,000명의 선교사를 추방한 실정이다. 도심에서의 노방 전도는 자체가 필요하고, 지방의 시골과 게르(천막집)의 축조 전도는 별 문제 없다.

3. 기도 제목

- 현지와 자라갈(신안목자교회) 선교사와 신제금(참빛하나교회) 선교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 몽골에 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 몽골에 이단(물몬교, 통일교)들이 생행하고 있는데 오직 십자가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팀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도록.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6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8일(월) - 8월 13일(토)	종동부 4팀	장혜진
8월 8일(월) - 8월 16일(화)	8교구 1팀	박성식
8월 9일(화) - 8월 17일(수)	14교구 3팀	신영환
8월 10일(수) - 8월 18일(목)	20교구 1팀	배종욱
8월 11일(목) - 8월 18일(목)	4교구 2팀	김영모
8월 12일(금) - 8월 20일(토)	17교구 2팀	남준호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10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일(월) - 8월 8일(월)	23교구 2팀	장병준
8월 1일(월) - 8월 9일(화)	11교구 5팀	김영록
8월 1일(월) - 8월 9일(화)	16교구 2팀	김현기
8월 1일(월) - 8월 9일(화)	20교구 3팀	김관수
8월 2일(화) - 8월 9일(화)	17교구 3팀	이영순
8월 2일(화) - 8월 9일(화)	대학부 4팀	이혜경
8월 2일(화) - 8월 10일(수)	대학부 3팀	문경숙
8월 3일(수) - 8월 11일(목)	대학부 6팀	박성철
8월 4일(목) - 8월 12일(금)	대학부 5팀	김대용
8월 5일(금) - 8월 13일(토)	청년1부 4팀	정은정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14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5일(월) - 8월 2일(화)	1교구 2팀	김 욱
7월 26일(화) - 8월 3일(수)	13교구 1팀	이성배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1교구 2팀	김영희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2교구 2팀	배종욱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4교구 3팀	정은출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5교구 2팀	유종석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5교구 3팀	박건일
7월 29일(금) - 8월 5일(금)	10교구 3팀	오영선
7월 29일(금) - 8월 6일(토)	9교구 3팀	송문식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8교구 2팀	김영환
7월 29일(금) - 8월 6일(토)	22교구 1팀	김재호
8월 1일(월) - 8월 6일(토)	고등부 3팀	김성주
8월 1일(월) - 8월 6일(토)	고등부 4팀	류동원
8월 1일(월) - 8월 6일(토)	청년1부 3팀	이승미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2011년 여름성경학교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함께라서 더 좋은 성경학교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어떤 공연으로 영아부 아이들을 즐겁게 해 줄까? 인형극이 좋을까? 작년에 했던 산드레·메이선은 어떨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이번에는 성극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전사님들과 함께 준비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공연자 혼자 준비하거나 달린 있는 젊은 선생님들과만 하던 것에서 늘 뒤에서 조용히 기도도 도와주시던 전사님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라는 생각 속에서 '나'와 '나'를 버리게 하시고 능력이 부족하기에 은혜로 더 많이 채워주시길 기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 할이 아니었기에 그 손중이 더 아름다웠고 부로심 따라 온 믿음이었기에 더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준비한 성극의 내용과 다름이 없었다. 우리가 이것으로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는 스타가 되길 원하지도 않았고, 세상 자식으로서만 충만한 박사와 같이 명예를 얻길 원하지 않았고, 이것으로 잠시라도 영화를 누리길 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주님이 부르신다면 부족함 그 모습 그대로 그 길이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가 없는 울퉁불퉁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실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길에 서는 것 그것이 이번 성경학교 성극의 주제였다. 함께 그 자리에 모였던 부모님들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었으리라 믿는다.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원 기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단지 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은 예수님에 성경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에 일과수일투족 함께 하시며 나와 호흡하시는 살아 있는 은혜인 것이다. 물론 우리 부족했다. 머나먼 까맣고 넓은 소밭이 안 왔었다. 그러나 한끼라서 조금만 잘 사했다. 그런 부족한 5%를 500%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2011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성극을 마치며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린다.

박전수(교사, 영아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준비와 지도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담아낼까 기대하기 보다는 시간이 생기는 일을까, 아이들이 지루해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나의 걱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아이들을 많이 불러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유아부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나왔습니다. 나의 계몽으로 인해 전날까지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유아부 아이들에게 상상지도 못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 손사일 때만 해도 반지각이 많았는데 급한 모습으로 얼마 손을 꼭 붙이고 예배사로 오는 아이들을 보며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1시간인 주일예배도 아이들에게는 길게만 느껴지는 데 4시간이나 되는 성경학교가 지겨운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또 친한 모습으로 찬양과 운동을 하고, 맛있게 간식을 먹고, 성령의 열매들을 따서 먹는 게임을 하고, 주님이 친자를 만드셨듯이 하늘과 땅에 주님의 창조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인형극 '노아의 방주'를 보았을 때는 이미 마칠 시간이었습니니다. 시간 시간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키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 시간이 얼마나 짧게만 느껴지는지,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치 천국 잔치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보이지 않는 사고가 나거나 하는 일 없이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아이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 받는 귀한 천국일꾼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권애리(교사, 유아부)



아기와 함께 한 성경학교

나의 딸 주희가 태어나서 처음 해 보는 것들이 참 많다.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서툰데 영아부에 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주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영아부에 나오면서 성경학교가 많이 기다려졌다. 교회를 향해 오면서는 내가 아기를 안고 영아부 성경학교에 나오다. 이러한 때가 내게도 오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기뻐졌다.

가다보면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에는 웃음과 감동, 메시지가 있었다. 아기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의 웃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감동이었다. 예배와 분반공부를 통해서 영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양을 반드시 이루셨고, 우리로도 이루실 거라는 것과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가르쳐주셨다. 주희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무리 뛰어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없이 키우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또한 돈, 명예, 지식, 인기 등을 다 사라지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삶의 자취는 하나님께 기록되어 다 남아 있을 것이다. 주희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많지만 세상의 돈, 명예, 지식,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주희로 양육하기를 소망한다. 주희의 신앙의 기쁨을 영아부 때부터 차근 차근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 생애 첫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에 오기를 참 잘한 것 같다. 신정현(집사, 영아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소서

매년 여름성경학교 때 나에게 들리는 첫 단어는 아이 엄마의 '교회에 차로 태워다 줄 수 있냐?'로 시작한다. 나의 마음은 항상 갈등한다. 꼭 사탄의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아질까.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나는 아이 엄마와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로 향하고 있다. 교회에 도착하고 다들 각자의 여름성경학교 교실로 이동하는 모습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의 미소를 볼 수 있다.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 때문인가 하고 막연히 생각만 했다. 큰 아이는 초등부터 고교까지는 아이와 나는 유아부로 갔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는 유아부에 적은 봉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많은 도움은 되지 못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전도사의 말씀이 이어졌다. 아이들의 그 맑은 눈동자가 말년에 집중되는 모습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다. 나에게

도 자란 마음과 눈빛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떠올리며 괜히 벅해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말씀대로 일상생활하게 될지 걱정해 출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다. '누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나는 하나님을 항상 뵈었고, 나의 자식상과 외가 먼저였으며 얼마 내 세상을 찾아 살고 있지 회개해 왔다. 아침에 활짝 웃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나도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계기로 나의 믿음생활에 기도와 말씀이 더욱 가득히 될 소망한다. 김정현(집사, 유아부)



병원 가던 날

남편과 결혼한 후 주님을 만나 지금껏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와 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 나이 큰을 훌쩍 넘기면서 사는 게 바빠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몸이 무서운 암덩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만나는 일도 게을리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든든한 백으로 항상 기대고 의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암이라는, 그것도 여자인 제게 무서운 유방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왜? 일밖에 한 것이 없는 저에게 왜?' 정말 야속했습니다. 아수한도 잠시.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중 교회 집사님을 통해 유방암 전문의를 소개받은 뒤 모든 문제가 의사진료로 술술. 정밀미지 수술 후 경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고, 지금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없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자신과 교회를 통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밀미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수술 전 도와달라요 열려주세요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을 대신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많은 위로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 나머지 같이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 했지만 요즘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병원 가던 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소영(성도, 12교구)

감사의 기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신 아바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앞뒤 높은 산, 평야가 없는 논밭, 산골짜기에서 흘러 모아진 넓은 개울, 그런 무척이나 넓어 보였던 개울과 그 맑은 물, 물결을 들추면 다슬기도 잡고 메기도 있던 개울이지만 지금 보면 참 초라합니다. 그러나 제가 컸던 곳 피는 소박한 산골의 좋은 추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겨울엔 손이 텅고 여름엔 산발기를 아주 까리 일에 싸 먹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장성하여 옛 추억을 생각하며 행복함 감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구멍가게조

차 없던 동네에 생필품 가게가 생겨나 그곳에서 사 먹던 사탕 맛이 얼마나 좋았지요. 그러나 돈을 주고 한 주먹 싹쓸 사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싶었던 기억만이 있습니다.

소매 끝에 킁을 두던 보잘것없던 촌 아이가 너무나 큰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게 꿈만 같습니다. 아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히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주시고, 특히 전통 무용도 배우게 해 주시고, 주님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신 것 너무나 자랑스러우며, 만복 주신 것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또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지혜로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꿈으로도 보여주셔서 은혜받게 하신다 감사가 넘칩니다.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티끌 같은 존재로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믿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로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풍성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골짜기에서 살아가게 복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제 마음속에 어떤 걱정도 다 아시고 막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통해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딸 태의 열매들도 주님 성전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과 주변 믿음의 친구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더욱 간절한 소망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잃는 저의 친지에게 믿지 않는 게 큰 죄라는 걸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최은경(집사, 애바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다

김성환 책임목사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장 중

요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매우 분주하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실로 중요한 것들인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론은 한 단어로 설명한다.

어린 양(계 5:6-8)! 양은 한때부터 악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다룬다! 어린 양은 더 약하다. 따라서 상공과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분명 관심 밖이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임을 강조한다. 어린 양이 천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찬송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드러지는 모든 찬송의 제목이다.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외쳤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시니(히 10:4,9-10).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떤 양이겠는가?"고 비아냥댄다. 우리도 이 사람들 중에 있지 않은가? 어린 양을 외면할 때 우리는 가장 그리고 영원히 비참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악함을 모두 회개하자.

어린 양은 거룩하신 창조주이시다. 어린 양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자.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세상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어린 양을 모시어 들이며 그분을 찬양하자. 아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소를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과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과과정	교구	인도자
2676	이현영	영아부	12		2684	백옥분	양육부	13	황정희
2677	이현우	영아부	12		2685	김진서	양육부	20	김금주
2678	김유준	영아부	14		2686	정미리	양육부	6	윤석민
2679	오수아	영아부	17		2687	하정민	초등2부	9	장은숙
2680	박지환	고등부	8	이산동	2688	조미정	청년1부	3	
2681	유병철	양육부	22	최한태	2689	이명숙		12	박미향
2682	진오경	양육부	1	윤석구	2690	강남철	양육부	22	안정자
2683	서노아	양육부	19	최미자	2691	권진숙	양육부	22	문화숙

Copyright © 2011 충청교회 Published by Choongchun Church Press